



■ '허정무호' 1기 26명 확정

박·이·설 'EPL 3총사' 합류

〈지성〉 〈영표〉 〈기현〉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설기현(풀럼), 이영표(토트넘) 등 프리미어리그 태극전사들이 허정무호에 합류했다.

허정무 축구대표팀 감독은 오는 30일 칠레와 친선 경기, 다음달 6일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아시아 3차예선 1차전 투르크메니스탄과 홈경기에 출전할 대표팀 명단 26명을 확정해 17일 발표했다.

칠레, 투르크메니스탄전은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다.

해외와 소집을 놓고 고민해온 허정무 감독은 월드컵 예선 대장전에서 첫 단추를 꿰는 1차전의 중요성을 감안해 프리미어리그 4인방 중 음주파문 징계를 받은 이동국(미들즈브러)을 제외한 전원을 불러들이는 '강수'를 폈다.

프리미어리그 태극전사들은 현재 한창 시즌을 소화하고 있지만 국제축구연맹(FIFA) A매치 차출 규정에 따라 경기 48시간 전에 소집된다. 박지성 등은 다음달 3, 4일쯤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허정무호 데뷔전인 30일 칠레전에는 국내

아시아컵 엔트리서 18명 교체

'음주 파문 징계' 이동국 제외

전남 염동균·곽태휘 첫 발탁

과 23명만으로 팀을 꾸린다.

이번 대표팀에는 골키퍼 염동균(전남), 수비수 곽태휘(전남) 황재원(포항) 박원재(포항), 미드필더 이동식(제주) 황지수(포항) 구자철(제주), 공격수 조진수(제주) 등 모두 8명이 처음 태극마크를 달았다.

허정무 감독은 K-리그 구단 탐방과 국내과 대표 지원 분석을 거친 결과 K-리그에서 숨은 실력을 인정받은 새 얼굴을 대거 발탁했다.

1기 허정무호 26명 중 작년 7월 아시아컵에 출전한 선수는 정성룡(포항), 강민수(전남), 김치우(전남), 염기훈(울산), 김두현(상남) 등 5명뿐이다. 아

시안컵 최종 엔트리(23명)에서 무려 18명이 교체됐다.

2006 독일월드컵 엔트리(23명)와 비교해도 이영표, 조원희(수원), 김남일(빛셀고베), 박지성, 김두현, 박주영(서울), 설기현을 뺀 16명이 새 얼굴로 바뀌었다.

처음 발탁된 10명 외에도 변화가 많았다.

베테랑 수문장 김병지(서울)는 2002년 11월 브라질전 이후 5년여 만에 다시 돌아왔다. K-리그 최고 테크닉 중 한 명인 이관우(수원)도 오랜만에 승선했다.

수비진에는 작년 포항의 리그 우승 주역인 황재원, 조성환, 박원재가 중용됐다. K-리그 성적이 좋지 못한 제주 소속 이동식, 구자철, 조진수가 발탁된 것도 예상 밖이다.

반면 잉글랜드 무대 진출을 타진하고 있는 조재진과 최성국(상남), 아직 제대로 소속팀을 정하지 못한 오병식, 김정우는 빠졌다.



박지성

이영표

설기현

이름값 아닌 철저한 기량 위주 선발

■ '허정무호' 1기 들여다 보니

17일 발표된 대표팀 명단을 보면 허정무 감독이 이미 지난 4일 50명의 예비 엔트리를 발표할 때 밝혔던 대표선수 선발 기준 및 팀 운영 구상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이름값이 아닌 기량을 우선시하고 프로 및 대표선수로서 정신 자세를 강조해온 허 감독은 당시 "백지 상태에서 50명을 뽑았다"며 "대표 선수는 모범이 돼

야 하고, 항상 그라운드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대표팀에 처음 발탁된 골키퍼 염동균(25.전남), 수비수 곽태휘(27.전남) 등 8명은 화려한 조명을 받아온 스타플레이어는 아니지만 이미 K-리그에서 기량을 인정받은 실력파이거나 성장 잠재력이 큰 기대주다.

이들은 허정무 감독과 정해성 수석코치 등 대표팀 코칭스태프가 K-리그 지휘봉을 잡고 있을 때 누구보다 가까이서 기량을 검증한 선수들이다.

박원재, 황재원, 황지수는 지난해 포항 스틸러스에 K-리그 우승컵을 안긴 주역이다.

지난 시즌 25경기에서 9골 2도움을 올린 왼쪽 미드필더 박원재는 활발한 오버래핑과 측면 돌파, 지칠 줄 모르는 체력을 자랑하며 포항 우승의 일등공신 역할을 해내 한때 리그 최우수선수(MVP) 후보로도 거론됐다.

중앙수비수 황재원은 32경기(2골 1도움), 중앙수비형 미드필더 황지수도 31경기(1득점)에 출전하는 등 꾸준한 경기력을 선보이며 포항은 물론 K-리그

의 알짜 선수로 확고히 입지를 굳혔다.

염동균과 곽태휘는 전남의 사상 첫 FA컵 2연패에 큰 힘을 보탠 끝에 태극마크까지 달게 됐다.

염동균은 2002 한 일 월드컵 당시 훈련멤버로 '히딩크 사단'에 합류했을 만큼 일찌감치 유망주로 꼽혀왔다.

하지만 정쟁한 선배들의 그늘에 가려 빛을 보지 못했다 2006년부터 출전 경기 수를 늘려가며 절정의 기량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FC서울에서 전남으로 이적한 곽태휘는 스피드와 근성, 제공권 다름 능력까지 두루 갖춘 수비수 전남 사령탑이던 허정무 감독의 신임이 두터웠다.

2002년 포항에 입단해 프로 7년째를 맞는 이동식

은 축구 팬들에게 낯선 이름이지만 지난해 광주에서 18경기 2골 2도움을 기록했고, 공격수 자원으로 발탁된 조진수도 지난 시즌 24경기에서 3골 3도움을 올렸다.

지난해 아시아 청소년(19세이하) 선수권대회 예선에도 출전한 구자철은 이번 대표팀에서 최연소. 허 감독이 "발전 속도가 빠른 좋은 자원"이라며 주목하고 있는 선수 중 하나다.

K-리그에서 보여준 활약을 바탕으로 태극마크를 단 이들이 한국 축구에 새 바람을 일으킬지 기대된다.

위창수 톱 10 진입 '청신호'

선두권과 불과 3타차 24위

범호프 크라이슬러 클래식 1R

2년 연속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뛰고 있는 위창수(36·테일러메이드)가 시즌 첫 대회에서 '톱 10' 가능성을 열었다.

위창수는 17일(한국시간) 캘리포니아주 라킨타의 라킨타골프장(파72)에서 치른 PGA 투어 범호프 크라이슬러 클래식 1라운드에서 버디 5개를 골라내며 4언더파 68타를 쳤다.

공동 24위까지 밀렸지만 선두그룹(7언더파 65타)에 불과 3타 밖에 뒤지지 않아 10위

이내 진입에 든든한 발판을 마련했다.

이번 시즌 들어 처음 투어대회에 나선 위창수는 안정된 샷을 바탕으로 네차례 밖에 그린을 놓치지 않았다. 다만 14차례 버디 기회를 더 살리지 못한 것이 다소 아쉬웠다.

소니오픈에서 공동 4위를 차지하며 부활의 날개를 폈던 나상욱(24·코브다골프)도 클래식클럽(파72)에서 3언더파 69타를 때려 공동 40위에 이름을 올려 상위권 도약을 위한 몸풀기를 무난히 마쳤다.

대회장 코 앞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던 재미교포 앤서니 김(23·나이키골프)은 PGA 웨스트 파머코스(파72)에서 3언더파 69타를 적어내며 나상욱과 함께 공동39위를 달렸다.



"우린 할 수 있어" 18일 남아공 센시티 게이리플레이어 골프장에서 열리는 여자월드컵골프대회에 한국대표로 참가한 신지애(위), 지은희 선수가 함께 연습라운드를 펴며 라인을 읽고 있다. /KPGA 제공

박성화호, 스페인 2부팀과 무승부

박주영·김승용 득점포 가동

박성화 감독이 이끄는 올림픽축구대표팀은 17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훈련지인 스페인 남부 라방가에서 스페인 세군다리가(2부) 엘체FC와 가진 연습경기에서 전반에만 네 골을 주고받는 공방 끝에 2-2로 비겼다.

박성화호는 박주영(FC서울), 김승용(광주)이 골을 터트렸다.

'공룡센터' 오늘 돌아왔지만 팀은 11연패

마이애미, 시카고에 96-126 완패



미국프로농구(NBA) 공룡센터 사킬 오닐이 돌아왔지만 마이애미 히트의 연패를 끊지 못했다.

허리 부상 때문에 8경기에 나서지 못했던 오닐은 17일(한국시간)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 위치한 에어라인스 아레나에서 열린 홈경기 시카고 불스 전에 출전, 33분 동안 24점을 넣고 리바운드 10개를 잡아냈다.

하지만 마이애미는 벤 고든(24점)과 조스미스(23점)를 앞세운 시카고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한 채 96-126으로 완패했다.

마이애미는 작년 12월26일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전부터 11연패를 당했다.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린 오닐은 1쿼터 종료 10분38초 전 드웨인 웨이드의 패스를 받아 점프슛으로 첫 득점을 올렸고 쿼터 종료 7분16초전에는 슬램 덩크도 터뜨리며 위

력을 보여줬다.

오늘의 가세에 신이 난 웨이드도 24점을 넣고 어시스트 6개를 배달하며 힘을 보탤다. 하지만 시카고는 3쿼터부터 고든과 스미스의 슈이 터지며 93-79로 점수를 벌려 사실상 승패를 판가름 냈다.

2연패를 당했던 보스턴 셀틱스는 레이 앨런이 35점, 케빈 가넷이 26점을 몰아치며 포틀랜드 트레일블레이저스를 100-90으로 제압, 원기를 회복했다.

골프·연도 회원권거래 전문기업

특별리 회원권

골프장 시세/매	골프장 시세/매
관 주 3,450	총 임대 1,700
남관 주 4,400	골드 1,900
승 주 8,200	도포양 2,100

상담 전화 (062)351-0095

상금 8억...KLPGA 사상 최고 대회 열린다

하이원컵 SBS 채리티여자오픈

8월28일 개막...우승 상금 2억원

한국여자프로골프 사상 최고 상금 대회가 올해 열린다.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와 하이원리조트, SBS는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하이원컵 SBS 채리티 여자오픈골프대회'를 8월28일부터 사흘 동안 강원도 정선 하이원골프장에서 연다고 17일 밝혔다.

'하이원컵 SBS 채리티 여자오픈골프대회'는 총상금이 무려 8억원에 이르고 우승 상금으로 2억원을 내걸어 한국여

자프로골프 대회 사상 최고 상금 대회가 됐다.

지금까지 최고 상금 대회는 총상금 5억원의 KB국민은행 스타투어 최종전이였다.

8억원의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대회 상금과 맞먹는 규모이다.

대회를 주최하는 SBS 하급업 대표이사는 "LPGA 투어 대회에 못지 않은 상금을 내걸었으니 대회의 수준도 LPGA 투어에 못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후원사인 하이원리조트 조기승 대표이사는 "국내에서 가장 높은 고원 지대에 위치한 한여름에도 서늘한 하이원리조트에서 최고 대회를 개최하게 돼 영광"이라고 밝혔다.